

미국 손자녀 전담양육 조모의 가정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세대간 관계와 과거 결혼문제를 중심으로-

최 혜 지

(한림대학교 노년학연구소 교수)

I. 서 론

가족이 갖는 유기체적 특성은 사회구조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진화를 가능하게 했다. 현대사회의 다양화된 가족구조는 변화된 사회구조에 대한 가족 나름의 적응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이 등장한 신가족 유형의 하나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세대 가정이다. 최근 20년간 조손세대 가정의 현저한 증가는 여성인구의 악물사용 증가, 여성수감자의 증가, AIDS 여성 감염자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요인을 그 원인으로 한다. 조손세대 가정은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부모의 실제적 부재를 의미하며 이는 곧 조손세대 가정 아동의 양육문제로 연결된다. 대부분의 경우 조손세대 가정의 아동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된다. 1998년 현재 18세 미만 미국아동의 13%가 조손가정 아동으로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그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Fuller-Thomson & Minkler, 2000).

생의 후반기에 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게된 조부모는 아동양육의 과업이 갖는 노동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비복지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nkler, 1999). 손자녀 양육 조부모에 대한 이 같은 각성을 기조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 개인의 범주를 벗어나 가족전체의 전이를 요구하는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연구의 초점을 조부모 개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조부모의 현재 삶과 관계된 요인들만으로 설명하려 함으로 시간적으로 제한적이고 정적인 이해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가족으로 연구단위를 확대함은 물론 연구변수를 조부모의 과거 개인사로 확대함으로써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험을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조부모의 과거 결혼 문제 및 과거 자녀세대와의 관계가 조부모의 현재 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조부모의 과거 결혼 문제가 조부모의 현재 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 조부모의 과거 자녀세대와의 관계가 조부모의 현재 가족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및 문헌고찰

1.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스트레스과정 모델과 생의 주기 관점을 이론적 토대로 전개되었다.

1) 스트레스과정 모델

스트레스 과정모델이 갖는 강점은 동모델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행태와 같은 수발자의 부양부담 설명을 위한 이론적 적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 받아 왔다는 점이다.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수발자의 부양부담을 배경, 스트레스, 중재, 그리고 결과라는 네 가지 이론적 변인간의 직선적 관계를 통해 설명한다(Pearlin, Mullan, Semple, & Skaff, 1990; Pearlin, 1994).

스트레스 이론가들은 배경변인을 수발자 즉 조부모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들로 정의했다(Pearlin et al., 1990). 스트레스 변인은 환기양상에 따라 일차적 이차적 스트레스로 분류되었다. 일차적 스트레스는 수발자와 비수발자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 조건으로 손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 또는 조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 등이 포함된다. 반면 이차적 스트레스는 삶의 포괄적 영역으로 확대된 고충으로 정의되며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족간의 관계, 직장생활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중재변인은 스트레스변인이 수발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변인으로 조부모의 사회적지지, 대처 기제, 사회 경제적 자원 등이 그 예이다(Lawton, Kleban, Moss, Rovine, & Glicksman, 1989; Pearlin, 1994). 결과변인은 수발제공이 수발자 삶의 다원적 영역에 미친 영향으로 조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복지감으로 개념화된다(Horowitz, 1985; Montgomery, Gonyea, & Hooyman, 1985; Poulshock & Deimling, 1984). 그러나, 스트레스 과정모델은 수발자의 심리적 대처 기제에 주된 학문적 관심을 제한함으로써(Yates, Tennstedt, & Chang, 1999) 부양부담의 설명에 수발자의 심리내적 요인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비판되어 왔다. 특히,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연구의 단위를 수발자 개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손자녀 양육에 개입된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변수를 반영하는 한계를 갖는다.

2) 생의 주기 관점

생의 주기 관점의 핵심개념은 개인, 가족, 사회 체계간의 상호의존성, 시간적 역사성, 그리고 개인 생의 주기와 가족 주기간의 의존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Burton, 1996). 생의 주기관점은 개인과 주변 체계와의 유기체적 관계성을 강조하며 개인에 대한 이해도 가족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생의 주기관점은 가족 및 개인의 현재 경험과 상태가 과거 가족과 개인의 역사에 의해 조형된다고

본다(Hareven, 1982). 생의주기 관점은 가족에 대한 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가족을 역사 속에서 동적으로 변화되는 체계로 조명하며 또한 유기체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가족원 모두의 상호역동적 관계를 강조한다(Hareven, 2000). 생의 주기관점은 특히 가족 구성원과 가족체계 간의 시간적 상호의존성을 중시한다(Hatch, 2000). 문화적 단위로써 가족은 예견되는 가족의 집단적 전이와 가족구조변화를 기초로 가족일정표를 구성하게 되며 특정 과업의 시기적 적절성도 구성된 가족일정을 기준으로 평가된다(willekens, 1999). 가족일정표의 예정 시기에 준하여 발생한 생의 사건이나 가족전이는 개인이나 가족에게 일상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 반면 가족일정표를 벗어난 사건이나 가족전이는 일탈적 사건으로 재적응의 문제를 유발한다(Hagestad & Burton, 1986; Neugarten & Hagestad, 1976).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른 가족생활표의 편차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대리모로의 역할전이는 일탈적 생의사로 평가된다(Sands & Goldberg-Glen, 2000).

3)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생의 주기적 관점 : 이론적 병합

변화하는 개인 및 가족의 삶이라는 주제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생의 주기적 관점의 이론적 병합은 시도된바 없다(Pearlin & Skaff, 1996). 그러나 두 이론이 중요한 논점을 공유하며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두 이론의 적절한 병합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이해를 위한 효과적(Pearlin & Skaff, 1996). 스트레스 과정 모델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의 심리내적 과정에, 생의 주기적 관점은 개인 및 가족 삶의 역사적 및 상호의존 과정을 연구의 핵으로 한다. 생의 주기적 관점은 연구의 단위를 가족 및 사회 문화적 맥락으로 확대함으로써 스트레스 과정 모델이 손자녀 양육의 이해를 조부모 개인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한다. 또한, 생의 주기적 관점은 인 개념적 도구로 강화될 것이다.

우선, 두 이론 모두 과정에 초점을 둔다는 공통성을 갖는다 손자녀 양육의 문제를 조부모 개인사 및 손자녀 양육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가족 전체의 역사를 통해 조명함으로써 보다 동적인 시각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 과정 모델과 생의 주기적 관점의 이론적 병합은 개인이 속한 가족맥락과 개인 및 가족의 역사성을 강조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현상에 관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Hunter, 1998).

2. 문헌고찰

1) 배경변인

선행연구의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주요한 배경변인임을 보여준다.

(1) 연령

조부모의 연령과 손자녀 양육 결과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연구마다 일관된 검증 결과를 보여준다(Moen, Robinson, & Dempster-McClain, 1995). 일반적으로 조부모의 나이와 손자녀 양육의 심리적

영향정도는 부정적인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Hayslips, Shore, Henderson, & Lambert, 1998; Sands & Goldberg-Glen, 2000). 중남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Burnette, 1999)에서도 조부모의 연령군이 낮을수록 높은 정도의 우울감을 나타내 조부모의 연령과 심리적 결과간의 부정적인 관련성이 특정 인종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2) 성별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성별적 편중으로 인해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조부모 성별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26%만이 남성으로 보고되고 있으며(Strawbridge et al., 1997), 대부분의 연구는 조모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제한한다(예: Ehrle & Day, 1994; Minkler & Roe, 1992; Minkler, 1994; Musil, 1998; Pearson et al., 1997; Roe, Minkler, Saunders, 1995; Roe, Minkler, Saunders, & Thomson, 1996). 손자녀 양육과 조부모의 사회적 활동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에서(Szinovacz, 1998), 손자녀 양육이후 조모가 사회활동의 감소를 경험하는 반면 조부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 인종

조부모의 인종은 손자녀 양육의 개입정도, 양육의 심리 사회적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 흑인 조부모들이 손자녀 양육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심리적 우울감, 결혼갈등 등을 경험하며 이는 흑인 조부모들의 사회, 경제상황의 상대적 취약성에 기초한 것으로 설명된다(Fuller-Thomson, 2000; Pruchno, 1999).

(4) 교육적 배경

조부모의 교육정도가 손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은 인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중남미 조부모의 경우, 높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Burnette, 1999), 흑인 또는 백인 조부모의 교육정도는 그들의 심리적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Minkler, 1997).

2) 스트레스 변인

(1) 신체적 기능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신체적 기능은 그들의 역할 수행에 관한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Dowdell, 1995; Hayslip et al., 1998). 신체적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조부모일수록 양육자의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만족정도가 높으며(Dowdell, 1995; Hayslip et al., 1998) 낮은 신체적 기능은 높은 우울감과 궤를 같이한다(Burnette, 1999).

(2) 부정적 생의 사

손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되는 조부모의 경우 일반적인 조부모에 비해 생애 부정적 경험이 많다(Dowdell, 1995; Kruger & Aprea, 1999; Musil, 1998). 손자녀 양육의 책임은 많은 경우 자녀사망 또는 자녀 이혼과 같은 부정적 사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Ehrle & day, 1994).

3) 매개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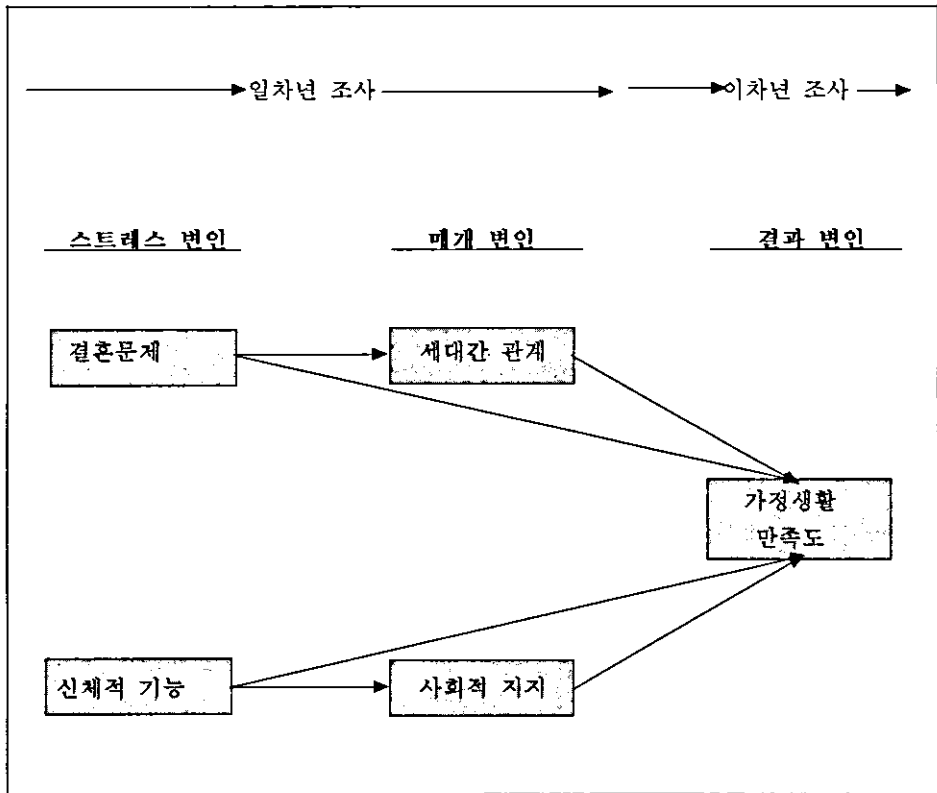
(1) 세대간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와의 관계로 대변되는 세대간 관계는 세대간 공존기간의 확대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Bengtson & Allen, 1993).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세대간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선행된 바는 없으나 노인수발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세대간 관계의 질이 자식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i, 2001, Yate, Tennstedt, Chang, 1999)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수발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Cronic & Greenberg, 1990; Crockenberg, 1987; Gallagher, Roe, Ruvera, Lovett, & Thompson, 1989).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화 기능은 노인수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지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스트레스 완화 기능이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작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후행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 1> 개념적 틀



3. 연구의 개념적 틀 및 가설

앞서 제기된 연구문제 탐색을 위한 본 조사의 개념적 틀은 검토된 선행연구와 스트레스 과정 모델 및 생의 주기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상되었다.

앞서 제시된 연구질문에 따른 구체적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1) 조부모의 과거 결혼문제는 조부모의 현재 가정생활 만족도와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2) 조부모의 과거 세대간 관계는 조부모의 현재 가정생활 만족도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3) 조부모의 과거 세대간 관계는 조부모의 과거 결혼문제가 현재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설계 및 조사자료

본 조사는 이차자료분석 조사로 설계되었다. 조사는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의 인구와 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가족 및 가구 국가 조사'의 1차년과 2차년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가족 및 가구 국가 조사'는 다단계 지역 확률 표집방법을 통해 100개의 조사지역으로부터 17,000가구를 선정했으며 19세 이상의 지역사회거주민 만이 조사에 포함되었다(Bumpass & Sweet, 1997). 1차년에는 13,008사례가 2차년에는 10,008사례가 조사되었다(Bumpass & Sweet, 1997).

2. 조사대상자

본 조사는 2차년 조사를 마친 10,008 응답자중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손자녀를 전담하여 양육한 경험이 있는 256명의 조부모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부모의 손자녀 전담양육 여부는 '당신은 생애 한번이라도 6개월 이상 손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맡아본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판단되었다.

3. 조사변수 및 조작적 정의

1) 배경원인

조부모의 연령, 성별, 인종, 교육적 수준이 배경변인으로 설정되었다. 조부모의 연령은 조부모 자신이 보고한 생물학적 연령으로 정의되었다. 성별은 조부모의 자기판단에 근거한 성별로 정의되었다. 인

중 역시 조부모의 주체적 자기판단에 의한 인종으로 정의되었다. 교육적 수준은 공식적 학교교육에 참여한 총년수로 조작화되었으며 6년 이상 학교교육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로 집단화되었다.

2) 스트레스변인

스트레스는 조부모의 신체적 기능과 부정적 생의 사로 개념화되었다. 조부모의 신체적 기능은 신체적 기능제한을 경험한 기간으로 조작화되었으며 1, '기능제한을 경험하지 못했다'에서 7, '평생동안 신체적 기능제한을 경험했다'의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부정적 생의 사는 조부모의 결혼갈등으로 정의되었으며 이혼 또는 별거의 총수로 측정되었다. 생의 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결혼관계의 부정적 변화가 개인이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생의 사건으로 보고하고 있다(Mutter & Schleifer, 1966; Rees & Lutkins, 1967; Murrell, Norris, and Hutchins, 1984).

3) 매개변인

매개변인은 세대간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로 개념화되었다. 세대간 관계는 조부모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자녀와의 관계의 질로 정의되었으며 '자녀와의 관계의 질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동 질문은 여러 선행연구(예., Kaufman & Uhlenberg, 1998; Bengtson & Roberts, 1991; Webster & Kaufman, 1995)에서 세대간 관계 측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 사회적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도구적 물질적 지지로 정의되었으며 조부모가 받은 도구적지지 항목과 물질적지지 항목의 총 빈도수로 측정되었다.

4) 결과변인

손자녀 양육이 조부모의 생에 미치는 결과는 조부모의 생의 만족도로 개념화되었다. 생의 특정 영역의 박탈을 경험한 개인에게는 박탈된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는 선행연구(Rijken, Komproe, Ros, Winnubst, & Heesch, 1995)와 손자녀 양육은 가정문제의 부산물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조부모의 생의 만족도는 가정생활만족도로 구체화되었다. 가정생활만족도는 미시간 대학에 의해 개발된 '삶의 질 조사' 도구로 측정되었다.

4. 통계분석

제시된 연구문제는 경로분석법을 통해 조사되었다. 경로분석법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와 하나 이상의 종속변수간의 관계를 동시에 조사할 수 있으며 변수간의 직접적 영향 및 간접적 영향을 설명한다(Schumacker & Lomax, 1996). 경로분석은 Lisrel 8.3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행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분석을 위해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한 univariate analyses와 bivariate analyses 실행되었다. 본 조사의 변수가 서열 또는 등간격 척도이므로 polychoric matrix가

산출되었으며(Joreskog & Sorbom, 1996), weighted least square 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부모의 인구경제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 조부모의 평균 연령은 53세로 최고령 조부모는 97세로 나타났다. 전체 조부모의 78%(n=211)가 여성이었으며 65%의 조부모가 백인, 27%가 흑인, 그리고 7.5%가 기타 인종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조부모(65%)가 결혼했으며, 31%가 이혼, 별거, 또는 사별한 경우이고 미혼의 조부모도 4%를 차지했다. 약 44%의 조부모는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졸 학력의 조부모도 약 3%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조부모(95%)가 고용경험이 있었으며 약 56% 조부모는 조사 당시 고용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전년도 총가구 평균소득은 \$31,018으로 보고 됐다.

2.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통제되어야 할 변인 선정을 위해 배경변인과 가정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가 조사되었다. 표본크기의 제한으로 각각의 배경변인은 두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며 집단간 가정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T-test를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조부모의 평균연령인 53세를 기준으로 고령 집단과 소령집단으로 분류되었다. 53세 이상 조부모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족생활 만족도를 보였으며 두 집단간 가정생활 만족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3, p=0.02$). 조모와 조부의 가정생활 만족도 역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생활 만족도를 보고했으며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t=2.84, p=0.00$). 인종에 따른 집단구분은 크게 백인조부모와 흑인조부모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타의 조부모는 표본의 한계로 인해 제외되었다. 백인과 흑인 조부모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조부모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정생활 만족도를 보이는 했으나 교육정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1.56, p=0.12$).

3. 경로분석

1) 다집단 경로분석

가정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배경변인,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조모 집단과 조부 집단 그리고 고령집단과 소령집단으로 분리된 다집단 경로분석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조부집단의 크기가

경로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크기에 미치지 못해 성별에 따른 다집단 경로분석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 대안으로 이후의 경로분석은 조부는 제외된 조모만을 표본으로 하여 실행되었다. 조모 집단은 연령에 따라 53세 이상의 고령집단과 53세 미만의 소령집단으로 다집단화되었으며 다음의 관계가 경로 모델에 구체화되었다.

- ▷ 과거 결혼갈등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직접영향
- ▷ 과거 신체적 기능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직접영향
- ▷ 과거 결혼갈등의 가족의 도구적 금전적 지지에 대한 직접영향
- ▷ 과거 신체적 기능의 세대간 관계에 대한 직접영향
- ▷ 과거 결혼갈등의 세대간 관계에 대한 직접영향
- ▷ 과거 신체적 기능의 가정의 도구적 금전적 지지에 대한 직접영향
- ▷ 세대간 관계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직접영향
- ▷ 도구적 금전적 지지의 가족생활 만족도에 대한 직접영향

다집단 경로분석의 결과, 경로모델에서 가정되었던 변수간 관계는 소령집단과 고령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x=1.82, p=0.87$). 이에 따라, 연령에 따른 집단간 구분없이 195명의 조모를 표본으로 경로분석을 실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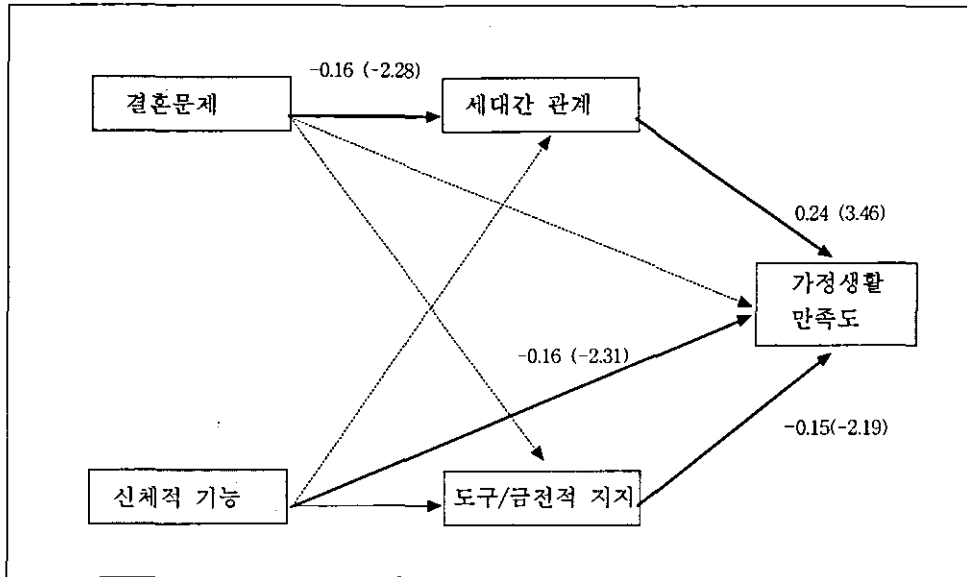
2) 모델 적합도

조사대상인 조모들로부터의 자료가 제시된 경로모델을 재현해낸 정도는 적합지수들로 나타났다. Goodness of fit index(GFI=0.99, $p=0.60$),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AGFI=0.99, $p=0.58$), Minimum fit function chi-square(MFFC=0.44, $p=0.51$)의 적합 지수들은 가정된 모델이 조모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적절히 설명함을 보여준다.

3) 경로계수

과거 조모의 결혼갈등은 세대간 관계에 부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b=-0.16, t=-2.28, p<0.05$). 즉 조모의 이혼이나 별거회수가 증가할 수록 조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부정적이다. 세대간 관계는 조모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24, t=3.64, p<0.01$) 이는 세대간 관계가 좋을수록 조모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모의 과거 신체적 기능 역시 가정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b=-0.16, t=-2.31, p<0.05$). 조모가 신체적 기능의 제한을 경험한 기간이 길수록 가정생활 만족도는 감소한다. 가족의 도구적 금전적지지 또한 조모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b=-0.15, t=-2.19, p<0.05$). 가족으로부터의 지지가 높은 조모일수록 가정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경로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본 조사의 결과는 손자녀를 전담양육하는 조모의 과거 결혼문제와 자녀와의 세대간 관계가 조모의 현재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밝힘으로 앞서 제시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특히, 조모의 결혼문제가 세대간 관계를 통해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밝힘으로 세대간 관계가 갖는 스트레스 완화의 매개기능을 검증했다.

본 조사는 조모의 과거 결혼문제라는 부정적 생의 사와 다른 가족과의 관계가 현재 조모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조모의 과거 경험의 산물로 이해하고 또, 다른 가족성원과의 의존성을 통해 분석하려는 생의 주기적 관점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 연구에 갖는 이론적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제시된 경로모델의 높은 모델적합지수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경험을 배경, 스트레스, 매개, 결과 변인간의 관계로 설명하려는 스트레스 과정이론의 이론적 합리성을 피력한다.

그러나, 각 변수들이 조모의 가정생활 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는 높지 않았으며 선행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못한 오차값이 높았다. 이는 본 조사에 사용된 변수의 대표성과 중요 변수의 생략과 관계된 문제로 이차자료분석조사인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설계상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백인 또는 흑인의 조모에게만 적용되며 인종과 성별을 초월한 일반화의 심각한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모의 원조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조모 개인

만을 표적으로 하는 제한된 접근법보다는 다른 가족 성원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체계론적 접근법이 효율적임을 시사하며 또한 과거 결혼생활의 문제가 많은 조모의 경우 원조의 욕구가 많은 우선대상자임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Bengtson, V., & Roberts, R. (1991). Intergenerational relation in aging families: An example of formal theory constru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856-870.
- Bengtson, V., & Allen, K. R. (1993). The life course perspective applied to families over time. In P. G. Boss., W. J. Doherty., R. LaRossa., W. R. Schumm., & S. K. Steinmetz. (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NY: Plenum Press.
- Bumpass L. R., & Sweet, J. A. (1997).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 Wave I, 1987-1988, and wave II, 1992-1994.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 Burnette, D. (1999).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of custodial grandparents in Latino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 305-318.
- Dowdell, E. B. (1994). Caregiver burden: Grandmothers raising their high risk grandchildren. *Journal of Psychosocial Nursing*, 33, 27-30.
- Ehrle, G. M., & Day, H. D. (1994). Adjustment and family functioning of grandmothers rearing their grandchildren.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6, 67-82.
- Fuller-Thomson, E., & Minkler, M. (2000). Americas Grandparent Caregivers: Who are they? In B Hayslip & R Goldberg-Glen (Eds.).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Hagestad, G. O. (1986). Dimension of time and the famil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29, 679-694.
- Hatch, L. R. (2000). Beyond gender difference: Adaptation to aging in life course perspective. New York, NY: Baywood Publishing Company, Inc.
- Hayslip, B., Shore, J., Henderson, C. E., & Lambert, P. L. (1998). Custodial grandparenting and the impact of grandchildren with problems on role satisfaction and role meaning. *Journal of Gerontology*, 53B, S164-S173.
- Hareven, T. K. (1982). The life course and ag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T. K. Hareven & Adams, K. J. (Eds.). *Aging and life course transitions*. New York, NY: The Guildford Press.
- Hareven, T. K. (2000). Families, history, and social change. Boulder, CO: Westview Press.
- Horowitz, A. (1985). Sons and daughters as caregivers to older parents: Differences in role performance and consequences. *The Gerontologist*, 25, 612-617.
- Hunter, A. G. (1998). Counting on grandmothers: Black mothers and fathers reliance on grandmothers for parenting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18, 251-269.
- Kaufman, Gayle & Uhlenberg, Peter. (1998). Effects of life course transitions 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s between adult children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24-938.
- Lawton, M. P., Kleban, M. H., Moss, M., Rovine, M. ., & Glicksman, A. (1989). Measuring caregiving appraisal.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44, 61-71.
- Minler, M., & Roe, K. M. (1993). Grandmothers as caregivers: Raising children of the crack cocaine

- epidemic,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Minkler, M., Fuller-Thomson, E., Miller, D., & Driver, D. (1997). Depression in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rchives of Family Medicine*, 6, 445-452.
- Minkler, M. (1999). Intergenerational households headed by grandparents: Contexts, realities and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Aging Studies*, 13, 199-218.
- Moen, P. (1995). Gender, age, and the life course.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London: Academic Press.
- Mui, A. (1992). Caregiver strain among Black and White daughter caregivers: A role theory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2, 203-212.
- Murrell, S., Norris, F., & Hutchins, G. (1984). Distribution and desirability of life events in older adults: popul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2, 301-311.
- Musil, C. M. (1998). Health,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grandmother caregiv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9, 441-155.
- Mutter, A., Schleifer, M. (1966). The role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in the onset of somatic illness in children. *Psychosomatic Medicine*, 28, 333-343.
- Neugarten, B. L., Moore, J. W., & Lowe, J. C. (1965). Age norms, age constraints, and adult soci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 710-717.
- Pearlin, L., Mullan, J. T., Shemple, S., & Skaff, M. (1990). Caregiving and the stress process: An overview of concepts and their measures. *The Gerontologist*, 30, 583-594.
- Pearlin, L. (1994). Conceptual strategies for the study of caregiver stress. In E. Light, G. Neiderehe, & B. D. Lebowitz (Eds.), *Stress effects on family caregivers of Alzheimers patients*.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Pruchno, R. (1999). Raising grandchildren: The experiences of black and white grandmothers. *The Gerontologist*, 39, 209-221.
- Rijken, M., Komproe, I., Ros, W., Winnubst, J., & Heesch. (1995). Subjective well-being of elderly women :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cancer patients, women suffering from chronic ailment and healthy women.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34, 289-300
- Roe, K. M., Minkler, M., & Saunders, F. F. (1995). Combining research, advocacy, and education: the methods of the grandparent caregiver study. *Health Education Quarterly*, 22, 458-475.
- Roe, K. M., Minkler, M., Saunders, F., & Thomson, G. E. (1996). Health of grandmothers raising children of the crack cocaine epidemic. *Medical Care*, 34, 1072-1084.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Webster, P., & Kaufman, G. (1995). The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relationship between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 Willekens, F. J. (1999). The life course: Model and analysis. In L. J. G. van Wissen & P.A. Dykstra (Eds.). *Population issues*. New York, NY: Plenum Publishers.
- Yates, M. E., Tennstedt, S., & Chang, B. H. (1999). Contributors to and media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for informal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54B, P12-P22.